

# 탐동광장 오는 30일부터 일시 전면 폐쇄

### 코로나19에도 음주·취식객 몰리며 위반사례 빈발 지역감염 위험 해소될 때까지... 종합상황실도 운영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도내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우려를 낳았던 제주시 탐동광장이 오는 30일부터 일시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폐쇄조치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적용된다.

시가 전면 폐쇄라는 조강수를 둔 것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

되면서 탐동광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시는 그동안 탐동광장 내 운동시설 폐쇄, 야간 집중 계도 활동 전개, 길이 600m의 음주·취식 방지용 분리시설물 설치, 오후 10시 이후 탐동광장 내 가로등 전면 소등 등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탐동광장 및 테마거리 이용객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는 데다, 음주·취

식행위와 관련된 방역 수칙 위반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탐동광장과 테마거리 일시 폐쇄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29일까지 진입 방지 시설물(높이 1.5m, 길이 1.38km)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날부터 통제구역 내에서 음주·취식 행위 등에 대한 본격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출입방지 펜스를 넘어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삼삼오오 모여 음주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벌금 300만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탐동에 종합상황

실을 설치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광장 및 산책로 등 이용객 계도를 통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7월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 제주도의 방역수칙 재조정 등을 보면서 관련 지침에 따라 개방 여부 등 탄력적으로 검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형대 시 도시계획과장은 “탐동광장에서 음주·취식행위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이어지는데 따른 조치”라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형기자 yhle@halla.com

#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주거환경 개선

### 18억 들여 기반시설도 정비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에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앞으로 3년간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와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총 18억 원을 투입해 향후 3개년간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귀덕1리는 그동안 문화·교육 인프라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주택 비율도 높아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 공동 이용시설 조성, 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을 하게 된다.

또 주택정비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취약계층 노후 집수리 등이, 마을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정비, 재해위험 예방시설, CCTV 설치 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화·복지 등 휴먼케어로 노인 돌봄, 건강관리,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윤형기자

# 공무원이 직접 행정소송 ‘일석이조’

### 제주시, 승소율 91.3%·1억2100만원 절감 효과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지난 5월 말 기준 68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 권리 의식 성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증가 등으로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은 전체사건의 44.4%, 직접 수행한 경우 승소율은 91.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예산 절감효과도 거두고 있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수행 시에는 건당 220여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

등이 발생하지만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최근 3년간 약 55건·1억2100만 원을 절감했다.

시는 자체 소송 수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행정소송 지원과 자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송 수행에 대한 포상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외부 변호사)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5개 사건·13명이 해당된다.

이윤형기자

# 서귀포시민 주식 관심 ↑

### 금융 도서대출 4배 상승 “30~40대 투자관심 높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에 따른 관련 도서 대출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서귀포시민이 가장 많이 대출한 금융 도서는 엠제이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이다. 이는 시가 ‘도서관정보 나무(도서관빅데이터분석플랫폼)’를 이용해 금융 관련 대출 도서 1만5242권을 분석한 결과다.

금융 관련 도서의 대출 현황에서 ‘부의 추월차선’이 136회로 가장 많이 대출됐다. 이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의 감각’, 주식 투자 도전기인 ‘3천만원’, 부동산 고수가 알려주는 ‘돈이 되는 제주 땅은 따로 있다’가 각각 106회, 돈 모이는 습관을 얘기하는 ‘돈 공부하는 처음이라’가 95회를 기록했다.

금융 관련 도서 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금융 관련 도서 상위 50위 가운데 부동산 관련 도서가 2018년 18권에서 2020년 5권으로 하락했다. 반면, 주식 관련 도서는 2018년 6권에서 지난해 25권으로 4배 이상 급상승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표한 전국 공공도서관 금융 관련 도서 상승률(2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백영탁기자



‘대물’을 기다리며... 21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포구 방파제에서 낚시꾼들이 대물을 기다리며 낚시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무상’ 대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도 운행 금지

### 대여 범위 명확히... 도민 장기 렌터카는 반입 허용

제주시 우도면에서는 무상으로 빌린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행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제주도는 이번 공고에서 ‘대여’의 범위에 유·무상을 모두 포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대여 목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대해선 우도면에서의 신규 운행을 금지해왔지만, 최근 우도면에서 모 업체가 무상으로 관광객

들에게 빌려주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해선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영업을 하고 있어 시시비비를 줄이기 위해 운행 제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관광객 등에게 무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8월 이전부터 우도면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대여 영업 등을 하는 업체는 기록권을 인정 받아 현재도 운행과 영입이 가능하다.

또 제주도는 이번 명령을 통해 우도 면에 주소를 둔 주민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민이라면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차량에 대해선 우도면 반입을 허락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장기 렌트하는 차량도 일반 대여 자동차로 간주돼 우도면 반입이 제한된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장기 대여 차량에 대해선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 서귀포지역 주요 관광지 산책로 정비

### 외돌개·쇠소깍·베릿내오름·성천봉 데크·난간 교체

서귀포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가량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산책로 정비에 나섰다.

2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제주 입도 관광객은 492만9638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0.3% 늘었다.

시는 이와 관련,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찾는 외돌개와 쇠소깍을 비

롯해 베릿내오름과 성천봉 등 4곳에 대한 산책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5억원을 투입해 외돌개 산책로 365m 구간에 대한 데크 정비교체(판석포장)에 나선다. 또 데크와 난간 교체를 위해 5억원을 들여 쇠소깍 일대 365m 구간을 정비한다.

중문관광단지내 베릿내오름 전망대·산책로 300m 구간 정비에 예산 1억3500만 원을 투입한다. 성천봉 데크 250m 구간의 보행데크 교체에도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백영탁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정전기식 수도매관 녹물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레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레드향
- 하레조생
- 하라봉
- 일남일호
- 그외 다수품종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레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하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겉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레아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갈, 팔삭, 세미봉, 금금,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중심 농촌진흥청 통상시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